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5.09.15.(월) 총 3매 (본문 3)	
자료 제공	• 해양연구본부 해양관광·문화연구실 - 최일선 실장(051-797-4727)/ 김예림 전문연구원(051-797-4797)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제영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우리나라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 소비

연간 1조 258억 원 규모, 전년 대비 42.3% 증가

- '24년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부산·제주 해양관광 양대 거점 부상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2024년 신용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연안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시장 전반의 회복세 속에서 해양관광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제214호 참고 (<https://www.kmi.re.kr/web/trebook/list.do?rbslidx=2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 박사팀(해양관광·문화연구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외국인 관광 소비 규모는 8조 7,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안지역 소비는 1조 258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소비의 11.7%를 차지하며, 전년(7,207억 원) 대비 4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48.4%)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광 수요 확대가 실제 소비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연안지역에서 외국인 관광 소비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내국인의 연안지역 관광 소비 규모가 38조 9,208억 원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외국인의 1회 평균 결제금액은 88,739원으로 내국인(22,719원)의 약 3.9배에 달했다. 또한 외국인의 관광 소비 중 숙박업이 51.5%(5,286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음식과 소매·유통 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이는 내국인과 대조적으로, 외국인들은 체류 및 숙박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절별로는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가 가을(30.5%)과 여름(30.0%)에 집중되는 성수기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겨울은 17.1%에 그쳐 내국인의 사계절 균형적 소비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성수기 중심의 상품과 함께 동절기 보완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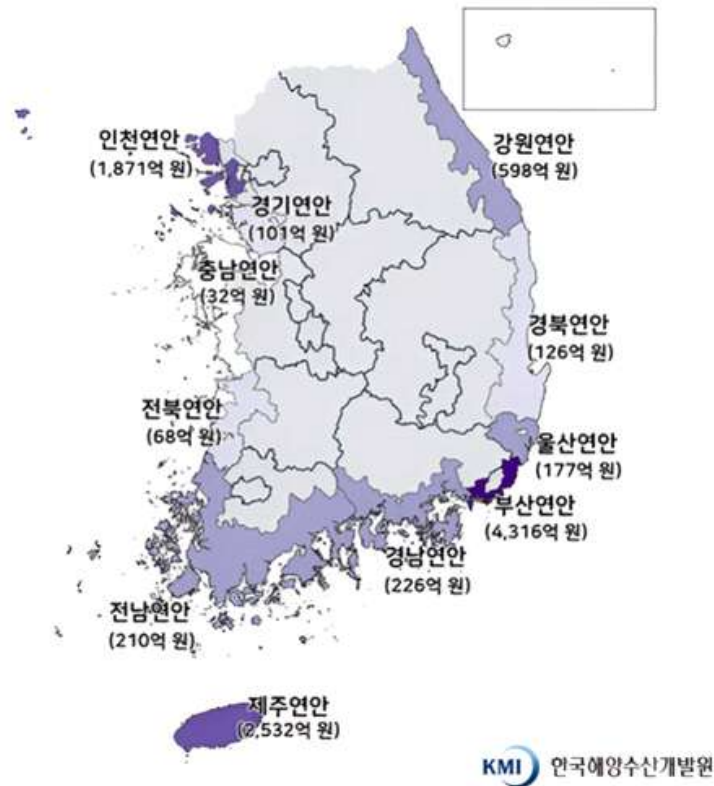
국적별 소비 비중은 싱가포르(19.0%), 미국(16.3%), 대만(14.3%) 순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구도를 유지했다. 특히 대만은 소비 금액이 전년 대비 106.3% 증가했고, 일본은 소비액이 전년 대비 229.3% 급증했다. 몽골은 812.7%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위 10위권에 진입해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다수 지역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 관광객이 핵심 소비층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에서는 일본(33.9%), 부산에서는 대만(22.4%) 관광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역별·국적별 소비패턴의 차이도 드러났다.

외국인 관광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가 여전히 이어졌다. 전체 소비의 65.3%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인천(9.7%), 부산(8.5%), 경기(7.7%)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연안지역만 보면 부산(42.1%)과 제주(24.7%)가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의 양대 거점으로 자리했고, 인천은 781억 원에서 1,871억 원으로 139.6% 증가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강원·충남·전북 등은 소비 규모가 여전히 낮아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졌다.

소비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인천연안은 숙박 비중이 전년 68.7%에서 83.1%로 크게 늘어나 외국인 숙박 중심지로 부상했다. 부산연안은 숙박 비중이 46.3%에서

38.1%로 줄어든 반면 소매·유통은 38.3%에서 45.3%로 증가해 쇼핑 중심지 성격이 강화됐다. 제주연안은 서귀포가 숙박 중심(67.9%), 제주시가 소매·유통 중심(48.2%)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보였다.

〈2024년 연안지역 외국인 해양관광시장 규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이번 분석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해양관광시장을 전년도와 비교해 체계적으로 계량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향후 국가별·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해양관광 전략을 마련하고, K-컬처와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를 확산시켜 연안지역이 세계적 수준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관광·문화연구실 김예림 전문연구원(051-797-4797) <yelimkim@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